

물길 따라, 철길 따라

곡성섬진강천문대

지난 9월 19일 전남 곡성에서는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 곡성 섬진강천문대 개관식이 있었다. 곡성섬진강천문대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주도하여 제작한 60cm 반사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공립천문대 중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망원경이 설치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17, 18, 19번으로 이어지며 전남 곡성에서 하동까지 섬진강과 나란히 달리는 국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이 멋진 길이 시작되는 곡성의 섬진강 강변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곡성섬진강천문대가 바로 그곳이다. 곡성 읍내에서 17번 국도를 타고 5분쯤 남쪽으로 내달리다 보면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작은 현수교(두가현수교)가 보이고, 그 너머로 2개의 돔이 반짝이며 빛나는 곡성섬진강천문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섬진강을 건너 천문대로 들어가려면 현수교 위쪽으로 있는 차량용 다리(두가세월교)를 이용해야 한다. 현수교는 보행자 전용이다.

일반적으로 천문대는 주변에 천체 관측을 방해하는 밝은 불빛이 없고, 사방의 시야가 트인 곳에 건설된다. 이런 점을 볼 때 곡성섬진강천문대는 관측에 있어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다. 섬진강이 흐르는 협곡에 있어 주변 산에 시야가 많이 가려지는 편이다. 물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게 보통인데, 강가에 위치한다는 것도 그리 좋은 입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자리를 잡은 건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결정이었다. 곡성 읍내에서는 물론이고, 광주광역시나 남원, 순창 등지에서 1시간 이내에 천문대를 찾을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천문대가 위치한 곳은 청소년야영장 지구 내로 야영장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이 아간에 운영되는 천문대의 특성상 숙박 시설을 갖춘 야영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천문대에서 섬진강 건너편을 보면, 도로 위 산기슭에 기차 몇 량과 기차역을 볼 수 있다. 이 역은 가정역으로, 현재는 전라선 복선화 공사로 폐선된 구 전라선의 간이역이었다. 곡성군에서는 이 구간을 매입해 곡성 읍내에 있는 섬진강기차마을의 구 곡성역에서 가정역까지 관광용 증기기관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칙칙폭폭 증기기관차를 타고 천문대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곡성섬진강천문대는 관측 환경을 조금 희생하는 대신 기존의 주변 관광 시설과의 연계와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한 입지이다.

천문대에 들어서면 로비 벽 높이 걸린, 우주의 모습을 담은 커다란 패널이 방문객을 맞는다. 정면으로 보이는 모니터는 멋진 우주 영상을 볼 수 있다. 로비 왼편으로는 천체투영실 입구가 보이고, 오른편 복도를 따라서는 화장실과 사무실이 있다. 직경 8m 규모의 천체투영실에서는 2채널 디지털 천체투영기로 둥근 돔 천장에 투영되는 다양한 천문우주 영상

을 감상할 수 있다. 2층에는 천문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600mm 주망원경이 설치된 주관측실이 자리하고 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6m×8m 규모에 지붕 전체가 열리는 슬라이딩 돔 형식의 보조관측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152mm 굴절망원경을 비롯해 모두 4대의 망원경이 설치되어 동시에 다양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곡성섬진강천문대에 설치된 600mm 주망원경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주도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망원경이다. 국내에서 제작함으로써 예산을 줄일 수 있었고, 운영 중 생길 수 있는 고장이나 기타 문제점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곡성군은 한국천문연구원과 운영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원으로부터 천문대 운영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천문관련 최신 자료 등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도 공동 추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천문대 운영 인원은 모두 5명으로 규모를 생각할 때 적절해 보인다. 천문대 내 휴식 공간은 로비에 있는 의자 몇 개 외에는 없어 부족해 보인다. 천문대 건물 뒤쪽 여유 공간을 교육과 휴식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 조만간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문대를 취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관광용 증기기관 열차가 주간에만 운영된다는 것이다. 열차를 타고 천문대를 방문하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열차를 타고 읍내로



돌아가거나 다른 교통편을 알아봐야 한다. 안전상의 문제로 야간 운행이 어렵다면, 열차를 이용한 방문객이 저녁 시간에 천문대를 관람하고 읍내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세울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곡성섬진강천문대 운영 요원들. 사진 속 3명을 포함, 총 5명이 천문대 운영을 담당한다.



▶ 보조관측실



▶ 천체투영실, 2채널 디지털 천체투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600mm 리치크레티앙 반사망원경 한국천문연구원 주도로 제작되었다.

■ 천문대 일반 현황

2007년 9월 19일 곡성읍천문대 개관

전라남도 곡성군 구달면 두거리 627-2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지구 내

규모 : 부지 2,283㎡, 건물 360㎡(2층)

공사기간 : 2005년 6월 23일~2007년 2월 27일

● 주요 시설

▶ 관측 시설

- 주관측실 : 6m 원형 돔

- 주망원경 : 600mm 리치크레티앙 반사망원경

(100mm 보조 굴절망원경, 70mm 태양전용 홍염 망원경)

- 보조관측실 : 6m×8m 슬라이딩 돔

- 보조망원경 : 152mm 아크로메틱 굴절망원경 1대

254mm 슈미트 카세그레인 반사굴절망원경 1대

203mm 슈미트 카세그레인 반사굴절 망원경 1대

80mm 중형 쌍안경 1대

▶ 기타 시설

- 천체투영실 : 8m 돔 스크린, 2채널 디지털 천체투영 시스템, 42석 관람석

● 홈페이지 : <http://www.stargs.or.kr>

전화 : 061-363-8528



● 이용 안내

- 운영시간 : 14:00~22:00 (평일 21시까지 입장, 휴관일 제외)

- 휴관일 : 1월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 경우 익일)

- 입장료

구분	개인		단체요금 (15인 이상)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어린이(7세 이상~12세 이하)	600원	1,000원	400원	700원
청소년/군인(13세 이상~18세 이하)	1,200원	2,000원	900원	1,500원
어른(대학생, 19세 이상)	1,800원	3,000원	1,500원	2,500원

- 단체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